

# 17세기 러시아 문학, 근대적 이해를 위한 시도

최정현

## 0. 들어가며

“슬라브-그리스-라틴 아카데미”, 미닌과 포자르스키, “동란의 시기”, 쟈스키 소보르, 니콘, 종교개혁과 분열, 구교도, 보리스 고두노프, 인쇄국, 아바쿰, 로마노프 왕조 개창, 루복, 바로코, 서슬라브, 피카레스크 소설, 시메온 폴로츠키 ... 등등의 다채로운 용어와 현상, 고유명사로 대변되는 ‘17세기 러시아’(Россия XVII века)<sup>1)</sup>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세계 문화사에서도 독특한 국면이다. “다채로운 세계”(пестрый мир), “소요의 세기”(бунташный век), “이행기”(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등으로 규정되는 이 세기는 만화경같은 현란함과 다채로움으로 인해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대적 특징 파악에는 사실상 적지않은 어려움을 남겨놓고 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17세기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러시아 문화사에서 17세기에 대한 이해의 틀이 갖추어져 가고는 있지만, 적어도 국내에서는 러시아 문화사나 문학사, 지역강독 또는 러시아문화예술세미나 등의 다양한 수업에서 17세기는 개괄적인 설명과 단편적인 예시, 작품에 대한 단선적인 접근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이는 17세기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도, 해당 주제에 대한 보다 심오한 연구에도 별다른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러시아 문학사와 문화사의 맥락에서 ‘17세기 러시아의 <이행기(переходный период)> 문학과 문화를 연역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가능한 방법으로, “작가”, “독자”, “주인공”이란 문학에서의 세 행동인(行動人)을 통해 17세기 문학을 재구성하는 시도를 감히 제안한다. 또한, 거명된 세 키워드는 각각 ‘역사’, ‘사회’, ‘문학’이란 개념과 연결되어 중세에서 근대로의 러시아 17세기 이행기 문화 자체를 재조명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통해, 중세적 가치와 이념, 실체가 근대적 개념과 등가물로의 이행의 패러다임을 문학과 사회의 연결고리에서 새롭게 해석해내려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주어진 고찰의 과정을 통해 일차적으로, 1703년 표트르 대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이전과 이후의 러시아로 양단되는, “고대 루시(Древняя Русь)”와 “새로운 러시아(Новая Россия)”의 전혀 다른 두 개의 러시아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가다듬을 것이다. 그리고 ‘17세기 러시아’가 중세와 근대의 양자를 이행기로서 매개해 왔음을 전제해, 17세기가

1) “17세기 러시아”라는 표현은 물론 다분히 의도적이다. 중세적 표현인 루시(Русь)와 근대의 명칭인 러시아(Россия)의 과도기적 명칭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하나, 러시아(Россия)라는 표기는 1387년 대주교 키프리안의 교직(敎職) 소개(Киевский и всяя Россия)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17세기 중반, 정확하게는 1654년, 총대주교 니콘의 비호 하에 키예프 출신으로 추정되는 에피파니 슬라비네츠키(Епифаний Славинецкий; ок.1600-1675)와 그의 인쇄국 ‘교정원’들이 Россия 라는 표기에 대해 Россия라는 표기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후 후자의 표기는 17세기 후반 내내 쓰였으며, 1721년 표트르 대제의 ‘황제’(Император) 칭호에서 ‘전러시아의’(Всероссийского)라는 형용사로 확실히 -сс-의 형태로 고정되었다(Клосс 2012: 153).

즉, 이전 14세기 후반부터 전해져 오던 -с-의 형태가 17세기 중반부터 바뀌게 된 셈이고, Россия라는 형태는 우리가 보기에 오늘날의 ‘러시아’(Россия)라는 명칭에 대한 일종의 징검다리 구실을 본의 아니게 맡은 셈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 충실하며, 또한 아래에서 이어질 논의와 필자의 현재로서의 생각처럼, “러시아”라는 이 논문에서의 한글표기는 명백히 유표적인 처리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러시아의 이행의 성격을 뚜렷이 드러내 주는 매우 적절한 표지라 여겨진다.

단순한 메타포로서 ‘이행’이라는 수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님에 또한 유념할 것이다. 중요한 논점은, **파편화된 단선체로서 17세기의 문학, 문화, 사회 분야 제 양상에 대한 산포된 나열적 인식을 극복해, <17세기 러시아>라는 하나의 ‘호로노토프’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연속적인 과정을 끊임없이 채워나가며 근대로의 점진적인 이행의 궤적을 추동해 나갔다**라는 점을 파악하는데 궁극적인 지향점을 둘 것이다.

## 1. 논의의 기본 관점

러시아에서 ‘17세기’라는 시대구분은 통상 1613년, 로마노프 왕조의 개창으로부터 시작해 표트르 대제의 서구화 개혁의 상징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 명령이 내려지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1703년까지를 지칭한다.<sup>2)</sup> 90년이 정도의 이 시기 러시아는 역사, 사회, 문화 등의 제 분야에서 중세의 틀을 벗어나 근대로의 이행에 있어 많은 격변과 갈등, 충돌을 겪은 과도기적 시기이다. 수많은 사건과 현상, 징후들이 존재하고 알력을 빚은 시기로 17세기의 이런 개별적인 상황들에 대한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20세기 초 혁혁한 성과를 남긴 플라토노프(С.Ф. Платонов 1923)를 위시해 스크르인니코프(Р.Г. Скрынников 1981, 1998)의 “대동란Смута”에 대한 고찰, 니콘의 종교개혁과 구교도 분열에 대한 젠코프스키(С.А. Зеньковский [1970] 2006)의 기념비적 탐구와 뎀코바(Н.С. Демкова 1974, 1998)의 주사제 아바쿰 생애전의 텍스트 연구, 이른바 <민주풍자> 문학에 대한 아드리야노바-페레츠(В.П. Адрианова-Перетц 1977)의 노작, 바로크에 대한 최근 사조노바(Л.И. Сазонова 2006, 2012)의 분석, 그리고 소비에트 최고의 17세기 전문가인 판첸코(А.М. Панченко 1984)의 17세기 문화지형 묘사, 그리고 레닌그라드 리하초프 학파에 의해 제시된 러시아 소설의 발생론적 기원에 대한 협동연구(Истоки русской беллетристики. Л.: 1970) 등은 모두 일정정도 17세기의 수많은 흥미진진한 개별적 문학, 문화, 사회현상들에 대한 수직적 심도를 강하게 가지는 연구와 분석이다.

16세기 모스크바의 중앙집권 국가로의 성장과 그 정점에서의 와해를 연결짓는 17세기의 동란의 시기에 대한 사가 플라토노프의 “왕조투쟁 => 사회대립 => 민족적 항거”의 단계별 진화와 흐름에 대한 분석은 탁월하지만, 동란의 시기와 그 종식 이후 새로운 로마노프 왕조의 개창을 배경으로 한 일련의 역사물(예; 『영광스런 러시아 왕국과 위대한 모스크바 대공국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Новая повесть о преславном Российском царстве и великом государстве Московском, 『모스크바 공국의 파멸과 나포에 관한 만가(輓歌)』Плач о пленении и конечном разорении Москов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등), 『1606년 이야기』(Повесть 1606 года) 등에서 인

2) 또는 표트르 대제의 실질적인 단독 지배가 시작된 1696년이나 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을 명령한 1703년으로 잡기도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이른바 율리우스력을 러시아가 받아들인 것이 바로 1700년이라는 점이다. 종래 러시아의 연대기와 사회 일반에서는 소위, ‘천지창조로부터의 역법 계산’을 받아들여 5508년을 더해오는 방식으로 연도를 계산하고 있었다. 또한 9월 1일을 일년의 시작으로 생각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유럽을 순회하고 러시아로 돌아온 표트르 대제는 7207년 12월 20일 황제의 명령을 내려, 앞으로 11일 뒤인 7208년 1월 1일부터서는 한해의 시작을 1월 1일로 하고, 또한 “천지창조 이후 7208년”이란 러시아가 따르던 종래의 역법 대신 ‘그리스도 탄생 이후 1700년’이란 서구식 역법을 받아들여 이를 따르도록 한다. 즉 1700년이 되는 이때부터 러시아는 한 해의 시작을 1월 1일로 기점으로 함과 동시에, 서기를 받아들임으로써 1700년이라는 백년의 출발점에 러시아의 새로운 시간의 기준을 대단히 의식적으로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도성의 맥락을 감안한다면, 러시아의 17세기는 다름아닌 ‘1700년’부터로 기점을 잡아도 충분히 무방할 듯싶다.

간의 의지와 행동간의 명백한 모순에 대한 뚜렷한 자각, 러시아 민족의 역사적 수난에 대한 인식과 이를 둘러싼 해석, 권력자의 모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성찰 등은 이들 상기한 작품의 등장인물로 역사의 무대에서 실제로 활동한 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옹호, 변명, 설명, 회상하려는 다양한 의도에서 출발<sup>3)</sup>, 결국 새로운 <작가автор>의 등장(Кусков 1977: 231)이라는 현상과 맞물리도록 하고 있다.

동일한 표현형이 이후에도 목도되고 있다. 니콘의 종교개혁 움직임에 저항한 구교도의 지도자인 주사제 아바쿰(Аввакум)의 생애전은 17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선 굵은 작품으로 평가 받고 있다. 아바쿰의 생애전은 그 자체로 텍스트 판본 연구부터 비롯해 생애전의 언어와 문학적 '자서전'이란, 17세기 러시아는 물론 고대 루시 전체에도 완전히 새로운 형식의 글쓰기로 규명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쉽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덴코바의 올바른 지적처럼, 아바쿰의 생애전은 수도원의 승방에서 아바쿰이 천상의 유일한 독자인 신을 위해 남긴 자신의 참회가 아니라, 자신의 생애전으로 구교 신도들에게 일종의 '진정한' 기독교도로서의 삶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지상의 무수한 <독자читатель>를 강하게 염두에 둔 “예시로서의 생애전”(жизние как образец для земских читателей, Демкова 1974: 163)이다.

텍스트학적인 관점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으로, 주사제 아바쿰 생애전의 아바쿰 친필본(Пустозерский сборник)과 사본의 절대다수는 16cm\*11cm 정도 크기의 8절판(осьмушка)이라는 점이다. 구교도 서적의 경우 탄압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에 넓은 옷자락 등에 숨기거나 휴대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작은 크기로 만든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또한 구교도 계층에서 문맹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이라는 젠코프스키의 주장(Зеньковский 2000: 389)과 17세기 중반, 급속하게 활발해진 종이의 보급과 더욱 빨라진 필사본의 확산속도(Розо в 1971: 72-73), 이반 표도로프(Иван Федоров)에 의한 서부 우크라이나에서의 인쇄술과 서책의 보급(Немировский 1985) 등은 구교도라는 일정한 <독자>층을 생겨나게 만들었고, 이들의 활동에 의해 필사와 인쇄를 통한 서적의 양적 보급의 확대는 팽창일로를 걷게 되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이행기의 문학 상황은 내적원리 뿐 아니라 문학 <바깥>의 요소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왔다. 요컨대, 17세기 러시아의 문학과 문화에 대한 <질적>인 보완을 거친 새로운 접근법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로서 17세기 러시아 문화를 입체적이며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작가>, <독자>, <주인공>이라는 문학의 세 키워드를 활용하기를 제안한다. 이 문학의 세 키워드는 좁은 의미에서 '문학'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17세기 러시아 사회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일종의 문화적 표징들로도 기능한다고 여겨진다.

상술했듯이, '대동관' 이후 새로운 시대에 대한 조망을 강력하게 희망, 이를 피력한 일련의 작품들에선 새로운 권력자와 그 새로운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 새로운 역사 인식과 해석의 역할을 맡은 <작가>의 위치가 두드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17세기 중반 종교적 충돌의 시기, 올바른 믿음을 구하고 지키려는 민중의 존재는 교육과 인쇄의 보급 등과 맞물려 이른바 <독자>층의 폭발적인 성장을 가능케한 요소였다. 그리고, 17세기 후반, 우크라이나를 통해 전파되기 시작한 폴란드(서슬라브)와 폴란드가 필터링한 서유럽의 문화의 영향으로 모스크바에서도 근대 유럽적 의미에서의 '문학'이 태동하기 시작했고,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가상의 등장인물, 즉 문학 작품의 주인공이 가장 큰 역할을

3) 리하쵸프는 사실상의 “회고록(мемуары)”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다.

부여받기 시작했다. 이러한 시대의 역사적, 문화적 정황을 감안한다면 ‘작가’, ‘독자’, ‘주인공’의 세 표제어는 좁은 의미의 문학에서의 행동인입과 동시에 나아가 중세에서 근대로의 17세기 이행기 러시아의 <문화>를 조명하는 적절한 전망대가 되리라 확신한다.

만약, 여기까지 일정정도 동의할 수 있다면, 질적인 보완연구를 위해 더욱 정교한 논의가 뒤따라야겠지만, 일단 아래와 같은 다이어그램으로써 17세기 러시아의 이행기에 관한 구체적인 탐사 경로를 연역식으로 제안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논의의 구체적 예정 경로

### 2-1. 작가의 탄생과 역사

이러한 선행 이해 아래, 문학을 통한 17세기 러시아 이행기 문화 탐구 범주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역사를 읽는 새로운 눈과 <작가>의 대두”이다. 1613년 종식된 ‘대동란’의 사회적 격변을 거치며 붕괴한 류릭 왕조의 마지막 국면에 대한 반성적 성찰과 정서적 동화를 함께 보이는 이들 역사물 작가의 새로운 시점은, 승리자의 역사 그렇게 기록되어야 하는 당위의 역사가 아니라 초기적 형태나마, 역사의 인과율을 추급하며 전체와 영원 속에서 투쟁하는 개인과 민족의 존재 등을 고찰하는 모습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이 시기 17세기 첫 국면의 가장 강한 고리는 “작가-역사”의 짝패가 될 것이다.

17세기 초 동란의 시기 역사적 격변기를 겪어내던 그 시기는 누구보다 <작가>가 우세하던 시기였다. 이들 작품은 이른바 대공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 하향식 이데올로기를 담지, 전파하는 매개라는 중세적 관점에 충실한 전형적인 관제중앙 역사물이며, 승리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역사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 이때를 무대로 러시아 역사에서 모스크바의 상황을 그려낸 일련의 작품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메시지와 선전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주입하려는 경향으로 점철되어 있다. 1980년 당시 레닌그라드에서 발행된 4권짜리 아카데미판 러시아 문학사의 17세기 부분 저자인 알렉산드르 판첸코 역시 17세기의 시작과 함께 출발한 이른바 ‘동란의 시대’의 문학은 기존 성직자나 권위있는 고위층이 저자가 되는 그들의 문학에서 여러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관료계급이 참여했음을 첫 번째 특징으로 꼽고 있다.

즉, 중세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문학의 세 인자인 작가와 독자, 그리고 주인공을 상징할 때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예정된 영향을 발휘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된 시기라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17세기 초반 무렵의 혼란의 시기는 러시아 역사에서 가장 수수께끼같은 시대로서 ‘사회’라는 항목을 표징하기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7세기 초 ‘대동란’ 시기, 인간의 의지와 행동 간의 모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새로운 작가층의 이념과는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동란’을 겪은 급변기,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제시하는 사관(史觀)의 등장은, 역사 해석과 기록자라는 ‘기능’에서는 중세 루시와 동일하지만, 개별화되고 인과론을 추급하며 순응적 사관에서 탈피하려는 이념적 지향을 보여주는 새로운 역사 기록자(Антонов 2007: 163), 곧 <작가>의 대두와 병렬하는 현상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변화하는 시대, 즉 <역사>를 읽는 새로운 ‘눈’(=>작가)이 생겨남은 정합적이며 타당한 귀결이라고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 2-2. 독자의 등장과 사회

둘째, “**사회의 분화와 독자의 확대**”이다. 17세기 중반의 계급적 분화와 사회적 분기, 양적 팽창과 기술적 진보 등이 구교도 저항운동과 맞물려 <글 읽는 민중>의 위상이 내적으로 강화된 시기에 관한 연구이다. 구교도 문학과 그 독자의 17세기 중반, 러시아 사회에서 차지한 역할과 의의에 대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7세기 중반인 1650~60년 무렵, 러시아 사회는 다시한번 요동치게 된다. 유럽의 종교개혁과는 오히려 정반대 성격의, 반(反)종교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니콘의 위로부터의 교회개혁 운동이 벌어지게 되고 이에 맞선 구교도 분리와 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러시아 교회의 순수화를 부르짖은 이 개혁은 극심한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저항, 러시아적 전통에의 고수를 고집한 “구교도”(старообрядцы) 세력의 사상적 중심에 자리잡은 것은 다름아닌 『사제장 아바쿰의 자서전』(Житие Аввакума, им самым написанное)이다.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중세 문학의 성자전에서 한참 일탈해 있는 이 작품의 많은 특징 중 가장 큰 일탈은 바로 ‘자신의 생애를 자신 스스로가 생존하고 있는 당시 썼다’는 점일 것이다. 댜코바가 잘 지적하고 있듯이, 아바쿰의 생애전은, 그러나 단순한 자서전적 고백을 넘어선다. 즉, 수도원의 승방에서 아바쿰이 천상의 유일한 ‘독자’인 신을 위해 남긴 자신의 참회록라기보다, 자신의 생애전으로 구교도들에게 일종의 ‘진정한’ 기독교도로서의 삶에 대한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지상의 무수한 <독자>를 강하게 염두에 둔, “일종의 대화를 위한 생애전”이라는 점이다.

서유럽의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시작하는 자서전적 전통에 비추어 본다면 17세기 러시아에서 자서전의 작가가 문득(!) 나타났다는 점은 분명 일종의 역사적 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 내부에서의 돌출된 역사적 사건으로 아바쿰의 생애전을 다루는 것은 문학의 화용론에 있어 선부른 판단을 내리는 것일 수 있다. 아바쿰의 생애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진솔한 대면임과 동시에, 이를 통한 공개된 참회록으로서 자신을 따르는 술한 구교도들에게 행동의 강령을 제시하는 또 다른,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 목적을 내태(內胎)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17세기 중반부는 종교개혁과 구교분열, 그리고 각종 소요 등이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을 야기하며 무엇보다 <사회> 자체가 내부적으로 분화되는 시기였다. 세기 초부터 시작되어온 수많은 반란과 민란이 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던 말 그대로 “소요의 세기(бунт ашный век)”였던 것이다. 이러한 때, 교육과 필사의 보급, 문자와 지식의 확대 등의 외부적 조건은 17세기 러시아 사회 내부의 정신적, 계급적 또는 (구교도의) 계층적 각성을 촉진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하게 각성된 구교도를 비롯한 사회의 꺾박받는 세력은 자신들의 저항의 이데올로기를 강고하게 구축하고 이를 통해 연대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일정정도 도운 것은 17세기 중반, 정확하게는 1660년대부터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르보프(Львов)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이반 표도로프(Иван Федоров; 1520?~1583)의 인쇄술**일 것이다. 물론, 초창기 인쇄술은 여전히 교회의 영역으로 독점되었지만, 동시에 **철자집(Азбука)이나 초급독본(Букварь)** 등, 이른바 문자보급에 적극 이바지하기도 했다. 구교도들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의 불리함 속에서도 글 배우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 당시 문맹률은 비구교도 일반보다 오히려 낮았다고 한다. 구교도 그룹이 열성적으로 글을 익혔던 것은 이른바 그들의 사회적 저항을 현실화하기 위한 토대를 문학에서 찾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중세 러시아로부터의 문학전통과 선적인 발전도상에서 변이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바쿰의 생애전 탄생**은, 많은 러시아 연구자들이 지적하듯 문학 자체의 성자전 장르의 내적 발전원리에 의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의 '요청'에 응하고자 생겨난, 또는 외부의 반응을 선도한 '사회적' 글쓰기 행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의 혼란스런 여정은, 결과론적 고찰이긴 하지만, 오히려 문학을 비롯한 문화에 긍정적인 자극을 준 면이 분명히 존재하며 또한 사회상의 종합적인 변화를 세밀하게 더듬지 않으면 자칫 중요한 요소를 놓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런 점에서 17세기 이행기 러시아 변전의 과정에 대한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 2-3. 주인공의 등장과 '문학'의 시작

셋째, **“문학 속의 주인공과 문학하는 인물”**의 등장이다.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를 통해 받아들이기 시작한 일종의 귀족문화로서의 **바로크는 모스크바에 전해진 뒤늦은 르네상스**였다. 병렬적인 현상으로 이런 바로크 현상과 더불어 여러 <풍자>적 성격의 작품이 민중 속에서 또는 서유럽의 이야기로 유입되었다. 이런 일련의 문학적 흐름의 유입과 함께, 허구의 문학적 주인공을 가상으로 축조해내고 또한 시와 드라마 등 이질적이고 낯선 장르들에 대한 습작은 “문학<하는>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위의 논의에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이행기 문화>를 중간의 접이지역으로 점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17세기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소설의 이전 형태로서 이른바 러시아문학 특유의 장르라고도 말할 수 있는 “포베스티(повесть)”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포베스티는 주제론적으로, 형태적으로, 인물들의 형상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구분의 기준이 무엇이 되었건, **17세기 후반부 이 시대 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른바 “문학성(литературность)”의 등장**이라는 점이다. 이런 논의는 작품의 ‘허구’의 주인공의 등장은 근대적 개념에서 접근하고 상정될 뿐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부터 정의되는 허구를 개연성있게 그려낸 소설이라는 장르의 시작이자 ‘문학’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중요한 지점이라는 설명에 근거하고 있다(변현태 2004: 109-135).

이 지점에는 또한 당시 유럽의 문화적 기운으로 중요하게 취급되었던 “바로크(Baroque)” 현상이 자리잡고 있다. 바로크라는 시대적 조류와 호응한 17세기 후반부 러시아의 모습은 허구의 문학에 주인공의 형상을 가장 다채롭고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며, 이는 그 자체로 중세적 글쓰기와 중세 문화의 일부분으로서의 문학에서 근대적 개념의 글쓰기와 근대적 개념으로서의 ‘문학’으로 접근해 나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17세기의 모스크바 대공국은 새로이 시작된 로마노프 왕조가 첫 번째 차르 미하일, 두 번째 “신심깊은 차르 알렉세이” 등 상대적으로 허약한 군주를 맞이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영토팽창의 제국주의적 수순을 착실히 밟아나가고 있었다. 이반 4세 때부터 시작된 시베리아 정복은 여전히 진행형이었으며, 잃어버린 고토를 회복하자는 민족적 트라우마의 치유를 위해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로 진격해 1667년, 차르 알렉세이는 우크라이나 카자크 게트만(гетман)인 마제파(Мазепа)로부터 항복의 백기를 건네받으며 드네프르강 좌안의 모든 영토와 강 건너의 키예프까지 수복했다.

이렇게 다시 모스크바의 품으로 돌아온 <루스-우크라이나><sup>4)</sup>는, 그러나 1240년 몽고-타타

4) 과거 키예프 루스의 영토로 오늘날 우크라이나 지방을 이런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르의 침입으로 블라디미르, 수즈달, 야로슬라블, 모스크바 등의 북동부 러시아와 절연된 지 400여년만의 재결합을 통해, 절연되었던 간극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 **재빨리 모스크바를 문화적으로 변모시켜갔다.** 당시 상대적으로 조야하고 거칠었던 모스크바 궁정과 보야르 등의 대귀족들과는 달리, 폴란드의 높은 문화적 영향을 깊숙이 받은 **키예프는 학문, 예술, 문화, 사회에 있어 모스크바보다 명백히 한수 위였다.** 모스크바는 키예프를 통해 폴란드의 **귀족문화, 즉 바로크 문화를 게걸스레 흡수했으며,**<sup>5)</sup> 그렇게 수용한 바로크 문화 속에 서유럽의 근대적 <문학>의 초기 형태가 녹아 있었다.

15세기 후반, 비잔틴의 붕괴와 함께 찾아든 “제2차 남슬라브 영향”을 전(前)르네상스(Предвозрождение)로 규정하려 노력한 리하초프(Д.С. Лихачев)의 의견보단, 치제프스키(Д.И. Чижевский)의 뒤를 이어 벤야민(W. Benjamin) 등이 지적하듯이, **러시아에게 서유럽의 르네상스와 비견되는 역할을 한 것은 다름아닌 “바로크”라는 점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바로크는, 그러나 **그 문화적 흐름만으로 유입된 것이라기보다,** 러시아의 동슬라브 형제인 우크라이나를 통해 모스크바로 전달되었으며 독일과 이탈리아의 본류 서유럽 바로크 문화는 폴란드 등을 통해 수용되는, **영토적 팽창이 가져다 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6)</sup>

이처럼 격변하던 17세기 이행기 러시아는 **문화적 내부 요인의 변화에 못지않게 외부적 자극과 사회상의 변화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에, 사회와 문화변화의 맥락에서 조화롭게 문학 발전을 조망할 것이 강하게 요청된다. 17세기 후반의 <풍자> 문학과 “포베스티” 작품들, 바로크적 영향을 강하게 담지하고 있는 시메온 폴로츠키(Симеон Полоцкий)의 시작품 일부, 그리고 초기 드라마 작품 등의 **폭넓은 텍스트는 바로크와 중세 러시아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문학성의 다양한 맹아적 형태의 발생과 분기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문학 작품 ‘안쪽’과 ‘바깥쪽’에서 스스로를 문학하는 인물이라고 여기던 자의식과 중세적 개념에서 완전히 탈피한 징후로서, “허구(вымышление)”의 가공인물의 등장과 그 의미 등에 대해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이다. 드라마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는 자체는 더 이상 중세 시대의 내적 체험으로서의 문학이라기보다 문학이라는 것을 매개

5) 서구 근대적 서정시의 러시아 학습의 초기형태가 폴란드의 음절시인 비르쉬(вирши)였음을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 평이하다. 키예프 동굴 아카데미(Киево-Могилянская академия)를 졸업한 시메온 폴로츠키(Симеон Полоцкий)에 의해 1687년, 모스크바에 세워진 <슬라브-그리스-라틴 아카데미(Славяно-греко-латинская академия)>의 설립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다. 18세기, 러시아 제국의 백과사전적 지성인인 미하일 로모노소프(М.В. Ломоносов)가 20살이 되던 해인 1731년, 바로 여기에 입학해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나게 된다. 자연스러운 흐름같지만, ‘모스크바’를 서구와 연결지은 것은 사실상 키예프였다.

6) 양파머리 양식의 돔이 특징적인 러시아 정교의 교회건축에서 1680년대부터 폴란드를 통해 서구 바로크 양식이 러시아의 건축에도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바로크 양식의 도입에 당시 모스크바의 대귀족이었던 나르이쉬킨(Нарышкины)과 골리츠인(Голицыны), 스트로가노프(Строгановы) 가문 등이 앞장섰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18세기 초반, 표트르 대제의 치세에도 바로크 양식이 인기를 계속 끌었던 것은 바로크와 뒤를 이은 로코코 양식의 화려함과 귀족취향 등이 주된 이유였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러한 신분적 취향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이후 이 바로크 양식, 특히 건축에서의 바로크 스타일은 러시아 중동부 평원지대의 니쭈니 노브고로드(Нижний Новгород), 카잔(Казань), 펜자(Пенза), 오를(Орел) 등 뿐 아니라 튜멘(Тюмень), 크라스노야르스크(Красноярск), 이르쿠츠크(Иркутск), 톰스크(Томск), 토볼스크(Тобольск) 등의 시베리아 지역으로까지 번져나갔다. 심지어는 “시베리아 바로크(Сибирское барокко)”라는 흐름이 있을 정도로(Капников 1986), 17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바로크는 의외로 18세기 초반까지, 그리고 모스크바와 이후 건설된 상트페테르부르크 뿐 아니라 러시아 동부 깊숙이 번져나간, 러시아 전역에 그 이정표를 알린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반적인 이행의 좌표계로 작용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로 명백히 허구임을 인식하면서 무대라는 인위적인 공간을 자각하는, 매개화된 문학 행위를 뚜렷이 느꼈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덧붙인다면, 상대적으로 대중적 수요와 맞아떨어진 “저가 문학”의 출현과 보급이 ‘사회적’ 맥락에서 조명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제 굳이 지적하지 않아도 좋을 듯싶다.

이러한 논의를 한데 모아, 17세기라는 역사적 시대와 그 시대 러시아 땅에서 벌어진 많은 일들을 문학을 통해 문화라는 가장 넓은 의미의 사회상을 이해해보려는 시도를 정리한다면 다음처럼 도식화시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작가>	<독자>	<주인공>
“대혼란”(Смута)	종교분열	바로코
소요의 세기	다채로운 세계	이행기
역사	사회	문학
.....		
문화		

### 3. 일단 마치며

중세의 맹장, 혹은 근세의 가발 정도로 취급받는 ‘17세기 러시아’라는 이 불가사의한 시공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이해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정정도 동의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덧말로 한 가지만 붙이자면, <작가 - 독자 - 주인공>이라는 이 세 문학적 동인(動人)과 ‘현상’은 누적적이라는 점이다. 즉, 17세기 초반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시기 역할이 부각된 <작가>는 이후 17세기는 물론, 그 이후까지 관통하는 중요한 표지로 정착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고, 세기 중반 교회를 둘러싼 영적 혼란과 정치적 투쟁의 시기, 더 이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정신적 투쟁의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한 <독자>들의 등장은 읽고 쓸 수 있는 언중의 본격적인 가장 현격한 등장으로서 세기 이후는 물론 근대로의 이행이 완전히 일어난 시점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기 후반과 말엽에 전격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주인공>은 그 이전 시기 어느 때보다 이때 강하게 전면에서 나서 이후에도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특정 어느 한 시점에 간헐적으로 우세한 현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어떤 점에서든 가치론적인 차원에서 질적인 ‘더 나옴’의 상태로 진화해 나갔다면, <작가 - 독자 - 주인공>은 그 진화의 여정에서 잠시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비로소 확고하게 자신의 위치를 다지기 시작한 그 지점에 글쓰이는 이 세 요소를 위치시킨 것이다.